[독서토론 요약] 유발 하라리《넥서스(NEXUS)》토론 내용

1. 도서 개요 및 주요 내용 발제

도서 및 주제: 유발 하라리의《넥서스: 원시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의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정보 네트워크의 역사적 변천과 AI(비유기적 네트워크)의 출현이 가져올 인류의 실존적 위기를 검토함.

정보에 대한 착각과 넥서스: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진실과 지혜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사람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현실(상호주관적 현실)을 구축하는 '넥서스'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함.

민주주의와 자정 장치: 민주주의는 분산된 정보 네트워크와 강력한 '자정 장치'를 통해 유지되나, 현대 기술은 이를 파괴하고 전체주의적 억압과 포퓰리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AI 시대의 위협과 과제: AI는 의식은 없으나 강력한 지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목표 설정, 대규모 감시 체계, 디지털 식민주의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스스로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고 제도적 대응 기관을 마련해야 함.

2. 도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방법론적 한계

역사적 접근의 한계와 '작가병' 지적:

저자가 대중적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적 개념들을 무리하게 연결하고 현재 중심주의적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AI를 도구로서의 단계와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단계로 혼용하고 있으며, 2단계(자율적 행위자)로 넘어갈 경우 기존의 역사학적 분석 방법론이 무력해진다는 한계가 지적됨.

민주주의 이상화 및 현실 부재(중국 사례 등):

책에서 상정하는 민주주의가 미국식 건국 당시의 이상적 모델에 편중되어 있으며, 포퓰리즘을 민주주의 내부의 모순이 아닌 외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저자는 AI가 전체주의 정권에 딜레마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실의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AI와 안면 인식 기술이 국가의 사회 통제 목적으로 완벽하게 종속·활용되고 있어 저자의 가설과 모순을 보인다는 비판이 논의됨.

3. 주요 토론 및 쟁점 사항

국제 정세와 AI 패권 경쟁: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저술되어 미·중·러 등 강대국들의 실제 AI 패권 경쟁과 현실주의적 대응(예: 딥시크 등 기술-권력 역학 관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옴.

인문학과 학문의 역할에 대한 성찰:

AI 시대에 인문학과 정치학·역사학 등이 기술 권력의 수단이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다만, AI의 작동 원리(블랙박스)에 대한 무지와 공포에서 벗어나 기술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AI의 문화 창조와 인간의 역할:

AI가 대량의 문화적 인공물을 생산해 내고 있으나, 장편 소설과 같은 복잡한 서사 구조나 맥락 유지(메모리 한계) 등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기술 만능론이나 극단적 비관론에 매몰되기보다 인간 중심의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토론이 마무리됨.